

목 차

서임권투쟁- 하인리히 4세와 그레고리 7세의 다툼을 중심으로

I. 들어가는 말	1	VI. 결 론	23
II. 신성로마제국과 교회의 상황	2	VII. 참고문헌	25
1. 그레고리 7세 이전의 신성로마제국과 교회	2	1. 단행본	25
1) 황제 중심의 제국주의	2	2. 번역본	25
2) 중심을 잃은 교회와 교황	3	3. 학술지	26
3) 새롭게 불어 닥친 역사의 바람	4		
2. 하인리히 4세와 클루니 수도원장 후고의 관계	5		
3. 전통과 혁신 속에 놓여진 로마교회	5		
III. 개혁자 그레고리 7세	6		
1. 그레고리 7세의 성장기와 그 속에서 형성된 사상	7		
2. 그레고리 7세의 등극	8		
3. 그레고리 7세의 개혁적 바탕	9		
IV. 그레고리 7세와 하인리히 4세의 서임권 투쟁	10		
1. 서임권 문제의 출현과 투쟁의 발단	10		
1) 하인리히 3세의 죽음에 따른 권력구조의 변화	10		
2) 하인리히 4세의 왕권회복 운동과 그레고리 7세	12		
2. 서임권 투쟁이 낳은 카놋사의 사건과 이를 통해 일어난 또 다른 사건	14		
1) 서임권 투쟁이 낳은 카놋사 사건	14		
2) 카놋사 사건을 통해 일어난 또 다른 사건	15		
3. 서임권 투쟁이 가져온 두 왕과 두 교황	16		
4. 그레고리 7세와 하인리히 4세의 최후	17		
1) 그레고리 7세의 최후와 그의 업적	17		
2) 하인리히 4세의 종말	19		
V. 서임권투쟁이 가져온 주요 결과들	19		
1. 서임권 논쟁에 대한 타결	19		
2. 교회의 회복과 교회와 국가의 관계	20		
3. 의식의 발전과 문화적 충격	21		

서임권투쟁- 하인리히 4세와 그레고리 7세의 다툼을 중심으로

I. 들어가는 말
II. 신성로마제국과 교회의 상황
1. 그레고리 7세 이전의 신성로마제국과 교회
2. 하인리히 4세와 클루니 수도원장 후고의 관계
3. 전통과 혁신 속에 놓여진 로마교회
III. 개혁자 그레고리 7세
1. 그레고리 7세의 성장기와 그 속에서 형성된 사상
2. 그레고리 7세의 등극
3. 그레고리 7세의 개혁적 바탕
IV. 그레고리 7세와 하인리히 4세의 서임권 투쟁
1. 서임권 문제의 출현과 투쟁의 발단
2. 서임권 투쟁이 낳은 카놋사의 사건과 이를 통해 일어난 또 다른 사건
3. 서임권 투쟁이 가져온 두 왕과 두 교황
4. 그레고리 7세와 하인리히 4세의 최후
V. 서임권투쟁이 가져온 주요 결과들
1. 서임권 논쟁에 대한 타결
2. 교회의 회복과 교회와 국가의 관계
3. 의식의 발전과 문화적 충격
VI. 결론
VII. 참고문헌

I. 들어가는 말

카놋사의 굴욕으로 유명한 그레고리 7세와 황제 하인리히 4세와의 대립은 유럽에서 벌어졌던 오랜 ‘서임권 투쟁’ 가운데 대표격이라 말할 수 있다. 그레고리 7세와 하인리히 4세 사이에 벌어졌던 서임권 투쟁은 단순한 두 사람 사이의 사건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의 전체적인 상황과 맥을 함께하고 있다. 어떤 역사가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가리켜 ‘납과 철의 암흑기’라고 말할 정도로 매우 상태가 좋지 않았다.¹⁾ 외부로는 카톨릭제국의 여러 곳에서 살상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노르만족과 사라센족 그리고 헝가리족의 침입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할 수도원이 침입자들의 손에 쉽게 넘어갔으며, 교회는 이러한 혼란을 바로 잡을 힘이 없었다.

1) 후스토 L. 콘잘레스, 이형기·차종순 역, 『기독교사상사(II)』 (서울: 장로교출판사, 2002), 179.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교회정치가 퇴폐의 일로를 걷고 있을 때 그레고리 7세는 교황권과 로마교회를 개혁할 인물로 등장하게 된다. 그레고리 7세 당시의 교회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암담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 독일황제는 권력을 이용하여 로마 교회의 내정을 간섭하였으며, 교황 및 감독의 임명을 좌우하고 있었다. 그리고 독일의 국내정세는 카롤 대제의 사후, 권력은 사실상 대제후(영주)들이 실권을 장악하였으며 교회는 영주의 손에서 그 흥망이 결정되었던 시대였다. 이런 암담한 상황 하에 교회내부 사정은 부패와 탐욕 그리고 모략과 음모가 끊이지 않았으며, 폭력과 암살이 난무하였다. 그리고 잇달아 일어난 교황 폐위사건 등으로 인한 11세기 초, 교황청의 권위는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었다. 이런 와중에 교회의 부흥과 교황권의 회복을 위한, 한 개혁자가 일어났으니 그가 나중에 그레고리 7세로 교황이 된 힐데브란트(1015-1085)였다. 그의 등장은 쓰러져가는 로마교회의 전성기가 되살아났다고 할 정도로 로마교회와 교황의 권위를 획기적으로 격상시켜놓게 된다. 이런 상황 가운데 벌어진 1077년 1월, 하인리히 4세의 ‘카놋사의 굴욕’으로 가시화된 서임권 투쟁은 그레고리 7세와 하인리히 4세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특히 서임권 투쟁의 연구는 크게 네 가지 부류를 통해 연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교회 정부와 세속 정부를 통한 연구이며, 두 번째는 ‘영토적’ 혹은 ‘민족적’ 교회들과 로마 주교 간에 있었던 연구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 교회 자체 내에서 교황과 추기경들 간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다룬 연구이며, 네 번째는 독일 왕국 내부에서 제기되었던 군주와 왕국 공동체들에 관한 긴장을 다루고 있는 연구이다.²⁾ 따라서 본 연구는 서임권 투쟁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하인리히 4세와 그레고리 7세의 다툼을 중심으로 서임권 투쟁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 배경을 다룰 것이며, 서임권 투쟁이 주는 의미와 투쟁의 결과를 권력양상의 재조명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신성로마제국과 교회의 상황

1. 그레고리 7세 이전의 신성로마제국과 교회

1) 황제 중심의 제국주의

10세기의 중세사회는 교회와 국가에 무지와 미신 그리고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면서 마치 암흑시대와도 같은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³⁾ 따라서 국가는 강력한 중앙

2) 이영재, “교황 Gregory 7세의 서임권 투쟁에 관하여”, 『한국서양중세사학회/서양중세사연구』 제15호 (2005): 28.

3)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4, 이상길 옮김, 『교회사전집 4』 (경기도: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6) 263.

집권권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런 시대적 반영 속에 잘 왕조를 시작시킨 콘라트 2세는⁴⁾ 제국의 황제에 대한 위상을 높이기 위해 1032년 프랑스의 부르그뉴 지방⁵⁾을 신성로마제국 하에 두게 된다. 황제의 권위는 국가와 교회를 동시에 다스리게 되며, 황제의 권위는 주교를 지명하거나, 선임된 주교를 재가하기까지 이르게 된다. 그리고 황제의 권위는 독일어권 전역에 이르게 되며, 수도원들은 제국의 정부 또는 황제의 보호를 확보함으로써 주변 봉건귀족들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11세기 초,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수도원의 자유는 그들 스스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황제에 의해 부여되어지는 일종의 특권이였다. 그리고 주교의 사목적 기능을 상징하는 지팡이의 수여와 반지의 수여는 황제에 의해 수여되었으며, 이것은 교권과 모든 관직이 황제에게 속하였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특히 교황제가 무능과 타락의 나락으로 가장 깊이 떨어졌던 시기인 1046년, 하인리히 3세가 황제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는⁶⁾ 황제의 총애를 입은 자들이 주교로 서임되는 등 성직자들이 황제의 대변인처럼 쓰임을 받게 된다.

2) 중심을 잃은 교회와 교황

당시 로마교회의 무능함은 한 부분의 문제로 야기되어진 것이 아니라 교황청 전체의 부패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론이었다. 베네딕트 8세의 경우, 그는 교황직을 아예 내놓고 뇌물을 주고 샀으며, 그의 뒤를 이은 요한 19세는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교황이 되기 위해 모든 성직의 절차를 돈으로 해결하게 된다.⁷⁾ 한 마디로 그들은 로마를 도적의 소굴로 바꾸어버렸던 것이다. 당시 유럽의 양식 있는 사람들은⁸⁾ 하나님의 적극적 개입에 의해, 마치 도둑과 강도들과 같은 자들에 의해 빼앗긴 베드로의 권좌를 되찾기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바람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똑같았다. 왜냐하면, 하인리히 3세가 황제로 재직하던 시대에는 교황직을 돈으로 매수한 그레고리 6세를 비롯한 3명이 교황으로 있었으며,⁹⁾ 세 명의 교황은 서로 교황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상태였다. 어느 누구도 승리자가 되지 못하였다.

황제의 명을 받아 교회회의를 소집한 그레고리 6세는 두 명의 경쟁자를 폐위시킨

4) 콘라트 2세(990년경~1039년)는 1024년부터 독일의 왕으로 선출되었고, 1027년부터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이탈리아의 왕이 된다. 그리고 1032년부터는 아들 왕이었으며, 잘 왕가의 시조가 된다. 그리고 작센 왕가의 바이에른의 하인리히 2세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오토 1세의 혈통인 그가 왕위를 승계하게 된다.
5) 이 지역은 당시 교회 개혁의 중심부로서 클루니 수도원의 활동 무대였던 곳이다.
6)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4, 278.
7)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4, 276-277.
8) 개혁가들 중에서도 급진적인 개혁가들. 당시 실바 갠디다의 추기경이었던 홈베르트는 교회법을 교육받은 사람이었다. 그는 *Three Books Against Simoniacs*(1058)라는 작품을 통해 평신도가 주교에게 목회 지휘봉과 반지를 수여하는 것으로 상징되는 평신도 지배 형태와 그 남용을 공격하였다. Joseph. H. Lynch, *The Medieval Church*, 심창섭, 채천석 옮김, 『중세교회사』 (서울: 솔로몬, 2007), 241.
9) 그레고리 6세, 베네딕트 9세, 실베스터 3세

다음, 자신 또한 교회회의에 의해 성직매매의 죄목으로 폐위를 당하게 된다.¹⁰⁾ 그리고 하인리히 3세에 의해 밤베르크의 주교 슈트거가 클레멘트 2세라는 이름으로 신임 교황이 되어 성탄절에 대관식을 치르게 된다. 그러나 재위 8달 만에 그는 숨을 거두게 되며, 교황자리를 두고 여러 쟁탈전이 벌어지게 된다. 1048년 황제는 로마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툴의 주교 브루노를 교황으로 임명하게 되며, 1049년 그는 레오 9세라는 이름으로 교황의 직무를 감당하게 된다.¹¹⁾ 그러나 레오 9세는 교황청의 재정 바닥으로 인해 자신이 직접 노자를 준비해야만 했으며, 자신의 노자마저 바닥이 나자 그는 힐데브란트를 자신의 차부제와 재무담당관과 고문으로 기용하게 된다. 한 마디로 로마교회의 권위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3) 새롭게 불어 닥친 역사의 바람

독일의 황제인 하인리히 3세의 갑작스런 죽음은 교회와 국가에 대단히 큰 지각의 변동을 가져오게 된다. 1056년, 39세의 젊은 황제였던 하인리히 3세의 죽음으로 그의 아들 하인리히 4세가 왕위에 오르게 된다. 그때 하인리히 4세의 나이는 6살이었다. 스스로 나라를 다스릴 위치에 놓여 있지 못했던 어린 소년의 통치는 왕국의 힘을 약화시켰으며, 모후인 아그네스 프와투의 섭정을 낳게 한다.¹²⁾ 그러나 아그네스 역시 정치적 경험의 부족으로 외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으며, 이때 그녀가 도움을 손길을 받았던 곳이 클루니 수도원의 원정이었던 후고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황제에게 집중되었던 권위는 자연스럽게 교황청으로 그 힘이 넘어가게 된다.

1071년, 황실과 교황청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21살이 된 하인리히 4세가 독자적인 정치를 펼쳐나가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의해 다스려졌던 강력한 왕조를 꿈꾸며 이를 회복시킬 것을 결심한다. 따라서 하인리히 4세는 군사력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돈과 권력의 확보를 위해 교회장악을 계획한다.¹³⁾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의 사람을 교회 내에 심는 작업을 거행하게 되며,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자가 교황으로 선출되도록 정치력을 발휘한다. 이때 하인리히

10) “그레고리우스 6세도 교황직을 매수한 성직매매 죄로 폐위되어야 마땅했으나 황제의 명을 받아 교회회의를 소집했고, 교황직을 매수한 죄 외에는 자격이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자진 사임을 허락받았다. ... 가련한 교황은 스스로 사임의 면을 마친 뒤 권좌에서 내려와 교황복을 벗고는 무릎 꿇은 채 기독교 세계의 가장 높은 권위를 탈취한 데 대해서 사죄를 구했다. 실제로는 교황처럼 행동하면서 법률상으로는 더 이상 교황이 아님을 선언한 것이다.”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4, 279.
- “힐데브란트-그레고리오는 로마 교황청 주변에서 경력을 쌓았고, 그레고리오 6세가 1046년 독일의 왕에 의해 폐위되어 망명을 떠날 때 쾰른까지 동행하기도 했다.” 호르스트 푸어만, 차용구 옮김, 『교황의 역사』 (서울: 도서출판 길, 2013), 136.
11)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4, 279-281.
12) 이영재, “교황 Gregory 7세의 서임권 투쟁에 관하여”, 31.
13) 하인리히 4세는 권력을 온전히 잡기 위해 군사력을 필요로 했으며, 그 군사력을 움직일 돈이 왕국의 재정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그럼으로 하인리히 4세는 교회로 집중되어 있는 돈의 물꼬를 잡아야만 했다. 그럴 때 자신은 나라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군주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세력 또한 거둬 낼 수 있었던 것이다. Joseph. H. Lynch, *The Medieval Church*, 243.

4세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알렉산더 2세는 하인리히 4세의 고문관을 성직 매매죄로 파문하게 된다.¹⁴⁾ 그러나 이 싸움 와중에 알렉산더 2세가 죽게 되고 보다 급진적인 개혁을 원했던 교황청 대집사였던 힐데브란트라 불리는 그레고리 7세가 1073년, 교황으로 선출된다.

2. 하인리히 4세와 클루니 수도원장 후고의 관계

황제였던 하인리히 4세와 클루니 수도원장이었던 후고는 중세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인 성직 서임권 투쟁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¹⁵⁾ 당시 당대 최고의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후고는 프랑스 카페 왕가 출신인 부르군트 공작들과 인척관계에 있는 세무르가 출신이었다. 그는 하인리히 3세가 젊은 나이에 죽게 되자 그의 아들 하인리히 4세의 대부가 되어 왕가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하인리히 4세의 어머니 아그네스가 비록 섭정을 해왔지만 그 섭정 또한 후고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였다. 그는 자신의 넓은 발을 통하여 하인리히 4세의 통치를 도왔으며, 제국과 교회의 마찰이 생길 때마다 이것을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하인리히 4세가 독립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시기, 교회의 권좌를 쉽게 휘어잡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런 후고의 영향력을 통해 사전에 자신의 자리를 견고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1076년 하인리히 4세가 그레고리 7세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을 때에도 후고가 그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유일한 인물이었다.

3. 전통과 혁신 속에 놓여진 로마교회

9세기 중엽, 샤를마뉴제국이 해체되고 있던 짧은 시기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서유럽 세계의 교회의 질서와 유지를 위해 힘을 쏟는다. 니콜라스 1세의 강력한 다스림은 이를 대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강력한 다스림 또한 일시적인 교황권의 강화에 불과하였다.¹⁶⁾ 교회는 유럽전역에 이르러 바이킹과 마자르 그리고 사라센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회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을 보호해줄 세력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이 일로 인해 많은 고위 성직자들이 대제후의 봉신이 되었으며, 봉건적 봉사의 의무를 지기도 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대가로 봉토와 수입 등을 비롯한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교회

14) 당시 교황이었던 알렉산더 2세와 하인리히(헨리) 4세는 1072년 밀라노에서 밀라노의 대주교 자리를 놓고 서로가 추천한 임후보자를 두고 충돌하게 된다. 왜냐하면 밀라노는 부유한 도시였으며, 따라서 자신이 후원하는 자가 그곳의 대주교가 될 경우 그들이 자신들의 장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알렉산더 2세는 개혁가를 후원하였으며, 하인리히 4세는 전통적인 사람을 임후보로 후원하였던 것이다. Joseph. H. Lynch, *The Medieval Church*, 242-243.

15) 김병룡, “성직 서임권 투쟁과 클루니의 정체성 : 하인리히 4세와 후고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서양사학회/서양사론』 제85호 (2005): 41.

16) 브라이언 타이어나 / 시드니 페인터 공저, 이연규 역, 『서양중세사』 (서울: 집문당, 1995), 222.

의 세속화는 금물살을 타고 있었다. 여기에 대해 수도원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교회법에 의해 사제는 결혼하지 않고 순결하게 살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 원칙은 이미 무너진지 오래였다. 심지어 성직 자체가 하나의 수입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부적절한 자들에게 성직이 매매가 되기도 했다. 10세기, 서방교회의 타락과 무질서의 중심에는 황제와 교황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악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몇몇 성직자들에 의해 910년 클루니 수도원이 세워지게 된다. 그리고 클루니 수도원을 중심으로 교회는 개혁의 뼈대를 갖추어가기 시작한다.

11세기 중엽, 교황청이 주도한 보편적인 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황제 하인리히 3세와 교황 레오 9세의 협력과 제휴를 통해 일기 시작한 교회의 개혁운동은 로마교회 전체의 구심점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개혁의 대상은 성직매매와 성직자의 결혼문제 그리고 교회의 세속화와 부패, 부조리 등이 그 중심의 대상이었다.¹⁷⁾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혁의 대상인 교회와 교황의 지위가 공고히 세워져야만 했다. 따라서 교회와 교황은 제국으로 부터 그리고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주교들과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했다. 그런 가운데 1073년 4월 21일 알렉산더 2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마치 개혁이 멈추어 선 것만 같았다. 그러나 알렉산더 2세의 죽음은 또 다른 변수를 만들어낸다. 여기에 등장하게 된 인물이 힐데브란트였다. 그는 알렉산더 2세의 죽음을 위해 사흘간 금식기도를 명하게 된다. 그리고 추기경들은 새 교황 선출에 들어간다. 이때 이미 쉬을 대로 쉬은 로마교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민심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 교회는 수도원적인 청빈과 함께 자발적인 독신으로 살 것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것을 요구한다.¹⁸⁾ 10세기 말엽부터 이미 클루니와 노선을 같이하였던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한 개혁의 바람은 기독교신앙에 대한 경건함을 요구하는 열망으로 변하게 된다. 그들은 성직자들이 더 이상 ‘성직매매’와 ‘간음’으로 세상에 연루되지 않길 바라며, 초대교회의 본을 따라 수도원적인 청빈과 자발적인 독신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요구하게 된다.¹⁹⁾

III. 개혁자 그레고리 7세

로마교회의 개혁은 그레고리 7세에 의해 집중되어진 문제가 아니다. 교회의 개혁에 따른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되어왔던 문제였다. 따라서 그레고리 7세의 개혁은 당대에 역사적 사건으로 그친 내용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뛰어넘어 지속

17) 장준철, “전통과 혁신 :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개혁의 양면성”, 『한국서양중세사학회』 제56호 (2008): 31.

18) 아돌프 마르틴 리터, 베른하르트 로제, 폴커 램판 편역, 공성철 옮김, 『중세교회』 교회와 신학의 역사원전 II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10), 192.

19) 아돌프 마르틴 리터, 베른하르트 로제, 폴커 램판, 공성철 옮김, 『중세교회』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10), 191-192.

되었고, 중세의 전성기에 교황의 현세권을 크게 강화하는데 공헌을 하게 된다.

1. 그레고리 7세의 성장기와 그 속에서 형성된 사상

그레고리 7세는 1028년경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의 소아나에서 태어났다. 그는 힐데브란트(Hildebrand)란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며, 자신의 아버지씨가 원장으로 있던 로마의 아벤티네 수도원에 들어가게 된다. 그는 어려서부터 엄격한 수도원 제도에 대한 사상을 품고 자랐으며, 라테라노 학교에서 요한 그라치아노의 문하생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 특히 그의 스승인 그레고리 6세가 교황이 되었을 때, 그는 교황비서로 일을 하게 되며, 1047년 그레고리 6세가 죽게 되자 클루니 수도원에 머물면서 엄격한 수도생활을 하게 된다.

1049년 툴(Toul)의 주교인 브루노(Bruno)가 레오 9세로 교황에 등극하면서 그는 레오 9세의 자문관으로 일을 하게 되며, 교황청의 재정 관리인과 함께 로마 성 바울로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이 된다. 이런 그레고리 7세는 역대 교황들의 선출과 교회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며, 1061년 교황청의 개혁파인 훔베르트 추기경이 사망한 후, 개혁의 주도세력이 된다. 이런 그레고리 7세는 교황이 되기 전, 열편의 시편을 암송할 때마다 두 손으로 채찍을 잡고 1000번이나 자신을 스스로 내리쳤다. 그는 이런 극단적인 행동이 다른 이들의 죄를 사하더라도 유효하다고 믿고 있었다.²⁰⁾ 특히 그레고리 7세의 이러한 사고는 교황제도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성직자는 제국의 권력에 간섭을 받지 말아야하고, 절대적 자유와 독립을 누려야 한다는 사상을 가지게 된다. 당시 중세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교황청의 주장은 교황이 세속의 제왕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²¹⁾ 그리고 교황청은 이것을 실증하려고 애를 쓴다. 이런 노력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그레고리 7세였다.²²⁾

로마 교황은 우주적인 감독이요, 그의 이름은 전 세계에서 결코 그 비슷한 종류를 발견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다. 교황에게만 감독을 폐위하거나 회복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으며, 감독의 부재시에도 원하면 그를 폐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심지어 장로회의의 동의 없이도 폐위할 권한이 있다. 교황만이 감독의 교구를 분리시키거나 연합시키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교회법을 새로 만들 수 있다. ... 모든 왕국들은 베드로 아래에 있는 봉토로 간주된다. 교황이 떠나게 되면서 하급자가 그들의 상급자를 송사할 수 있다. 어떠한 종교회의도 교황의 지시 없이는 총회의라고 부를 수 없다. ...²³⁾

20) 앤드류 밀러, 정형모 역, 『성경의 예언적 관점에서 본 교회사』 3, (경기도: 전도출판사, 2006), 32.
21) 임원택, 『역사의 거울 앞에서』 (서울: 도서출판 수풀, 2008), 62.
22) 그레고리 7세의 교서 내용 중에는 "교황은 아무에게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 앞으로 세상 끝 날까지 결코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레고리 7세 이후 교황을 베드로의 대리자라고 부르는 것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부르게 된다.
23) 앤드류 밀러, 정형모 역, 『성경의 예언적 관점에서 본 교회사』 3, 35.

수도원의 삶을 통해 자란 그레고리 7세는 성직자에 대한 독신주의와 성직매매는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결국은 커다란 재난을 안겨다준다는 사고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그는 성직매매를 모든 죄를 다 포함하는 죄로 여겼으며, 성직매매는 악에서 발생한 하나의 이단적 행동으로 보게 된다.

2. 그레고리 7세의 등극

힐데브란트였던 그레고리 7세의 등장은 그리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새로운 교황을 선출함에 있어서 민중들은 개혁에 걸맞은 힐데브란트가 교황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런 민심을 잘 알고 있었던 추기경 후고는 단상에 올라가 연설을 통해 교황의 자리는 돈과 권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직자로서 이미 검증된 자가 선출되어야함을 천명한다. 그리고 추기경들과 성직자들은 한사람을 선출하고 외친다. "성 베드로께서 힐데브란트를 교황으로 선출했습니다!"²⁴⁾ 당시, 연설을 주도한 사람도, 민중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사람도 모두가 클루니 수도원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들이었다.

민중에 의해 세워진 힐데브란트에 대해 추기경들은 즉각적인 법의 추인을 통해 그를 세우게 되며, 자색 옷과 삼중관을 씌우고 문서의 낭독을 통해 그의 선출을 확정하게 된다.²⁵⁾ 어떻게 보면 힐데브란트인 그레고리 7세가 교황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권좌의 배후에서 실제로 그 역할을 감당했으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권좌에 오를 수 있는 인물이었다.²⁶⁾ 이렇게 선출된 힐데브란트는 자신의 이름을 자신이 모셨던 그레고리 6세의 이름을 따 그레고리 7세로 이름을 명하게 된다.²⁷⁾ 그러나 그의 스승이었던 그레고리 6세는 자신에게 수여된 삼중관을 돈으로 매수했던 자였으며, 이 때문에 성직매매의 혐의로 하인리히 3세로부터 폐위를 당했던 사람이었다. 따라서 힐데브란트가 자신의 스승이었던 그레고리 6세의 이름을 따, 그것을 자신의 이름으로 삼은 것에는 두 가지의 큰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그레고리

24)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5, 42.
25) 그레고리 7세는 1059년의 '교황 선출에 관한 교서'에 기록된 절차, 곧 새로운 교황은 추기경회의에서 선임하고, 그 다음에 일반 성직자들과 백성들의 추인을 받는다는 절차를 무시하였다. 그는 자기는 교황이 되기 싫었지만 로마인들의 열광적인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황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연극을 꾸민 것이다. 이 연극의 총진행은 맡은 사람은 그레고리 7세의 오랜 동역자였던 후고였다. 김광재, 『중세교회사』 (서울: 도서출판 신성, 2002), 262-263 .
26) 힐데브란트는 알렉산더 2세의 장례식을 집전하게 된다. 이때 시민들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 그를 후계자로 선출하고자 한다. 그러나 힐데브란트는 자신의 자격 없음과 이러한 선거방식의 불법성과 시기가 옳지 않음을 역설한다. 그러나 시민들은 실제 권력을 행사하는 자가 명목상으로 책임도 겨야 한다는 논리로 힐데브란트로 하여금 교황 위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한다. 그리고 알렉산더 2세가 매장 되던 날 군중들은 힐데브란트를 강제로 성 베드로 교회당으로 끌고 가 그를 강제로 교황에 임명하게 한다. 윌리엄 R. 케논, 서영일 역, 『중세교회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6), 205.
27) Wattenbach는 그레고리라는 이름을 택한 것을 제국과 수트리 교회회의(헨리 3세가 그레고리 6세를 포함하여 3명의 교황에 대해 폐위를 선언했던 회의)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으로 간주하고 있다.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5, 43.

라는 이름을 통해 자신은 성직자들 사이의 부도덕과 성직매매로부터 교회를 철저히 정화시키겠다는 뜻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신도들에 의한 성직수입으로부터 교구들 및 교회 기관들을 해방시켜 교회에 대한 세속권력의 간섭을 방지시키겠다는 것이다.²⁸⁾ 따라서 그의 이름을 그레고리라 칭하게 된 것은 교회를 향해서는 개혁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며, 제국을 향해서는 제국이 교회문제를 간섭한 것에 대한 항의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이름을 그레고리로 칭한 것은 당시 황제였던 하인리히 4세의 사전 재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교회의 입장을 알리는 수단이었다.

3. 그레고리 7세의 개혁적 바탕

6세기경부터 평신도들은 두 가지의 방편을 통해 성직자들의 선출에 관여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귀족들은 성직자들과 함께 신자들의 영혼을 돌볼 주교들이나 장로들의 선출에 관여할 수 있었으며, 두 번째는 일반 신자들은 주교로 지명 받은 인물이 그들 앞에 나서면 환호성과 갈채를 보내어 그 선출에 동의를 표시하도록 교회법으로 보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9세기와 10세기에 접어들면서 봉건 영주들에 의해 그들의 권리는 교회법 이상의 것을 행하게 된다.²⁹⁾ 심지어 국왕은 주교들과 수도원장들을 개인적으로 지명하였으며, 이들에게 직분을 상징하는 반지와 지팡이를 수여하였다. 제대로 훈련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받은 성직자들에게 교회법은 종이쪽지와도 같이 취급을 받는다. 따라서 성직자들의 결혼과 여성들과의 동거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며, 교회는 무너질 때로 무너져버린 상태가 된다.

교황이 된 그레고리 7세에게는 늘 꿈꿔왔던 이상적인 교회관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모세의 전거와 교회법에 토대를 둔 ‘신정(Theocracy)’이었다. 그는 교회의 도덕적 순결과 금욕적 경건을 통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순종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절대주권을 추구하고 있었다. 따라서 성 베드로의 교회인 로마교회는 모든 교회의 머리요, 어머니로서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³⁰⁾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레고리 7세는 인간의 열정과 지혜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이러한 체계의 구현을 위해 역대 어떤 교황보다도 적극적 자세를 취하게 된다.³¹⁾ 특히 그는 자신의 스승인 그레고리 6세로부터 사도교구를 지탱하는 사람은 군주나 이 세상의 세력 자가 아니라 학대받는 ‘그리스도의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철저히 배우게 된다.³²⁾ 이런 세속의 권력에 대한 이해와 판단으로 세워진 그레고리 7세는 자신의

28) 그레고리의 개혁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은 교회가 아니라 수도사들이었다. 이들은 애초부터 평신도들의 간섭을 받지 않는 위치에 있었다. 예를 들어 클루니 사원의 원장은 그 어떤 외부 세력도 원장 선거에 개입하거나 또는 수도원 규정에 따른 운영에 간섭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었다. 윌리엄 R. 케논, 서영일 역, 『중세 교회사』, 205-206.

29) 마가렛 단슬리, 박희석 역, 『중세교회역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116.

30) Joseph. H. Lynch, *The Medieval Church*, 243.

31)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5, 47.

능력이 닿는 데까지 교황의 절대권을 주장하고 행사하였으며, 이런 권위를 찾는 일에 있어서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성직자들의 도덕적 개혁을 위한 운동에도 강력하게 대처하게 된다. 따라서 그레고리 7세는 1074년, 성직을 돈으로 사고파는 행위와 성직자의 결혼을 금지하며, 미사에 대한 두 가지의 금지령을 내리게 된다. 그 중 하나는 결혼한 모든 성직자들로 하여금 미사를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또 다른 하나는 미사를 주재할 때 평신도들이 참여하는 것을 금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1074년, 성직자의 독신생활에 대한 선언문을 발표하며 개혁을 칼날을 더 높이게 된다.

어느 사제나 부제가 결혼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성 베드로의 권위로 우리는 그들이 회개하고 그 방식을 고칠 때까지는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금한다. 만약 그들이 아내와 더불어 계속 산다면, 그들의 축복이 저주로 바뀌고, 그들의 기도가 죄로 바뀌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주관할 때에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말 2:2). 이 유익한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상숭배의 죄로 다스릴 것이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삼상 15:21). 그럼으로 크리스천이라고 주장은 하나 교황의 명령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이교도의 죄로 다스릴 것이다.³³⁾

그레고리 7세는 교황의 절대권과 성직자들의 도덕적 개혁이라는 양 바퀴의 개혁적 바탕위에 자신을 올려놓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교황은 베드로의 계승자이며, 교황은 전투하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³⁴⁾ 그럼으로 그가 생각할 때, 성직 서임식에 대한 왕의 통제권을 완전히 소멸시켜야하며,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교회를 정화시켜나가야 한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IV. 그레고리 7세와 하인리히 4세의 서임권 투쟁

1. 서임권 문제의 출현과 투쟁의 발단

1) 하인리히 3세의 죽음에 따른 권력구조의 변화

강력한 개혁추진자였던 교황 레오 9세의 죽음과 동.서방교회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당시 황제였던 신성로마제국의 하인리히 3세의 협력으로 개혁은 지속되어진다. 황제는 레오 9세가 죽자 즉시 독일인이자 개혁적 성향을 가진 빅토르 2세(Victor II 1055-57)를 교황으로 임명하고, 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지원한다. 그러나 1056

32) 임도건, 『초대.중세 교회의 역사와 신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163.

33) 심창섭, 채천석 편저, 『원자로 중심의 중세교회사』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07), 86.

34) (마 16:18, 19)에 기록된 말씀을 마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직접 하신 말씀으로 여기게 된다. 따라서 교황은 베드로의 승고한 직위를 계승한자라 생각한다.

년 황제 하인리히 3세의 죽음으로 교회는 개혁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인리히 3세의 갑작스런 죽음은 교회로 하여금 오히려 세속적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한다.

그리고 일 년 후 교황 빅토르 2세가 죽자, 교황을 누가 선출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이때 교황의 선출을 추기경단이 주도를 하게 된다. 추기경단은 그들 중 한 명인 이태리 북부지역의 스테판 9세(Stephen IX, 1057-58)를 교황으로 선출하게 된다. 이 사건은 독일인에 의해 몇 차례 점유되어오던 교황권이 이태리인에게로 다시 돌아옴으로 이태리인들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주는 계기가 된다. 더군다나 황제에게 자문을 구하지도 않고, 추기경단의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 있어서 추기경단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스테판 9세가 교황이 되면서 교황청 독립은 시대의 조류를 따라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된다.³⁵⁾ 여기에 덧붙여 스테판 9세의 재위기간 중 밀라노 시민들은 자기들 가운데 무능력하고, 부도덕한 성직자들을 몰아내기 위해 'Patari'라는 기관을 조직하게 된다.³⁶⁾

교황의 자리를 비롯한 모든 성직의 주요자리를 '속인' 군주의 마음에 따라 임명되는 것은 로마교회가 주도하는 개혁운동과 걸맞지 않았다. 이런 개혁운동에 있어서 일익을 담당한 사람이 추기경 훔베르트(Humbert of Silva Candidia)였다. 그는 이미 1055년 한 논문을 통해 황제가 아니라 추기경을 통해 교황이 세워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임을 지적한다.³⁷⁾ 따라서 이런 개혁의 한 맥을 이어갔던 니콜라스 2세(1059~1061)는 교황에 오르면서 1059년, 로마에서 열린 한 회의를 통해 교황 선출에 따른 절차와 규정을 법령으로 선포하게 된다. 이런 새로워진 환경에서 개혁자들의 움직임은 더욱 더 대담해져 간다.³⁸⁾

(3) 보편적인 로마교회의 주교가 죽으면, 우선은 추기경주교들이 모든 것을 아주 세심하게 생각해서 실행에 옮겨야 하며, 곧 바로 추기경 성직자들을 합류시켜야 한다; 이렇게 그 밖의 성직자와 백성이 새로운 선출에 동의하며 참여하여야 한다. (4) 그 어떤 일에 매매의 병폐가 침투하지 않도록 보좌에 올라야 하는 주교 선거에는 성직자들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하며, 반대로 다른 자들은 따라야 한다. ...그 교구의 성직자들로부터 서임되지도 않은 자들이 주교로 인정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³⁹⁾

35) 1057년 8월 3일, 몬테카치노의 추기경 대수도원장이 황실에 자문을 구하지 않고 로마의 성직자단과 민중에 의해 교황에 선출된다. 그러나 그는 약 8개월 뒤, 1058년 3월 29일 죽고 만다. 이때 시대적 상황은 하인리히 3세가 죽고, 어린 하인리히 4세가 어머니의 섭정을 통해 나라가 다스려졌을 때다. 따라서 이 기간은 교회의 개혁파들에게 있어서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다. 그럼으로 개혁파들은 교황청을 황제의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일에 주력을 하게 된다.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5, 35.

36) 'Patari'는 '농민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윌리엄 R. 케논, 서영일 역, 『중세교회사』, 202.

37) 교회의 성물이자 주교의 권능 즉, 주교로서의 축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물건인 지팡이와 반지 -을 어떻게 속인이 부여할 수 있는가? 브라이언 타이먼 / 시드니 페인터 공저, 이연규 역, 『서양중세사』, 228.

38) 로마 귀족의 당파들과 황제의 정부는 이후 교황 선출에 간여할 수 없도록 실질적으로 배제되었으며, 교황선출은 로마교회의 추기경들에게 맡겨졌다.

이와는 달리 하인리히 4세는 독일의 제후들에 의해 왕권이 약화되어졌으며, 정치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지게 된다. 따라서 하인리히 4세는 성년이 되기까지 왕권이 잠식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⁴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년이 된 하인리히 4세는 교회개혁에 따른 어떤 명문에도 동참하지 않는다. 그의 목적은 오직, 왕권의 회복이었으며, 과거와 같이 그 아래 모든 것을 복속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1073년, 알렉산더 2세가 죽고 힐데브란트가 추기경들에 의해 교황으로 선출되었을 때, 새로운 개혁의 교황과 하인리히 4세 사이에는 긴장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 하인리히 4세의 왕권회복 운동과 그레고리 7세

성년이 된 독일의 왕, 하인리히 4세와 그레고리 7세와의 서임권에 따른 분쟁은 니콜라스 2세의 '교황선출교령'을 그 바탕으로 하여, 1075년 하인리히 4세가 밀라노 대주교로 태발트를 임명하면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등장하기 시작한다.⁴¹⁾ 그레고리 7세는 하인리히 4세의 행동에 대해 질책을 하게 되고, 하인리히 4세는 이러한 그레고리 7세를 향하여 폐위령으로 대응하게 된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적대적 감정은 이미 알렉산더 2세가 교황으로 있을 때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당시 하인리히 4세의 측근이었던 4명의 고위 성직자가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힐데브란트의 주도하에 파문당한 사실이 있었다.⁴²⁾ 이런 전례가 있었던 두 사람은 밀라노시의 통치권을 쥐고 있는 밀라노 주교의 선출을 놓고 분쟁하게 된다.⁴³⁾ 1075년 여름, 하인리히 4세는 작센의 반군을 크게 무찌르고 밀라노 주교에 대한 후보지원을 재개하게 된다. 여기에 대해 그레고리 7세는 파문과 폐위의 위협을 담은 서한을 하인리히 4세에게 보낸다.

중 중의 종인 주교 그레고리는 하인리히 왕에게 문안과 사도적 축복을 내리지만

39) 니콜라스 2세는 힐데브란트(그레고리 7세)의 진언을 좇아 장래의 교황들을 선출할 추기경단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니콜라스 2세가 사망한 후 바로 이 기준들에 의해 알렉산더 2세(1061~1073)가 선출된다. "니콜라스 2세의 교황선출교령(1059)", 아돌프 마르틴 리터, 베른하르트 로제, 폴커 램펜 편역, 공성철 옮김, 『중세교회』 교회와 신학의 역사원전 II, 193.

40) 하인리히 4세가 장기간 미성년자로 왕위에 있음으로, 왕실의 권위는 위태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의 보호자요, 왕궁의 섭정 자였던 아그네스 여왕 또한 정적들에 의해 그 권위가 강제로 박탈당했으며, 정권을 노리는 귀족들의 손에 의해 하인리히 4세는 마치 장기의 말처럼 옮겨 다녀야만 했다. 윌리엄 R. 케논, 서영일 역, 『중세교회사』, 210.

41) 독일 왕과 교황 간의 투쟁은 한 특수한 사건에서 촉발된다. 궁정 전속 사제였던 태발트를 하인리히가 밀라노 대주교로 1075년 임명하게 된다. 이에 따른 그레고리의 질책에 하인리히는 독일 주교들이 로마에 대해 가진 적대적 감정에 의지해서 폐위령을 대응하게 된다. 아돌프 마르틴 리터, 베른하르트 로제, 폴커 램펜 편역, 공성철 옮김, 『중세교회』 교회와 신학의 역사원전 II, 196.

42) 그레고리 7세가 교황이 되기 전, 힐데브란트라는 이름으로 교황청에서 실제로 군림하고 있을 때였다. 쾨헬, 『중세교회사』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0), 169.

43) 북부 이탈리아에서 황제권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황제는 무엇보다 롬바르트 평야에서 가장 큰 도시인 밀라노의 통치자를 자신의 통치 아래 두어야 했다. 따라서 밀라노의 주교자리는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 독일 황제에게도, 로마교회의 입장에서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자리였다.

그와 더불어 기독교 왕으로서 사도좌에 복종할 것을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그대는 내게 여러 번 충성스러운 편지를 보내주었고, 그 표현과 신앙에 있어서 온갖 미사 어구를 동원하여 본인에게 복종하고, 헌신하는 지도자로 나타낸 것은 대단히 놀랄 만한 일이오, 하지만 실제 행위에 있어서는 왕실이 교회에 의당히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교회법과 사도적 교령을 가장 철저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밀라노 문제를 두고서 말한 그대의 약속의 준수가 무엇인지 확인 되었소 ... 그대는 스스로 교회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수장 즉 사도들의 으뜸이신 베드로에게 더욱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했소이다. ...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제후들과 사람들은 이 교령을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교령에 순종해야만 한다는 판단이 본인에게 섰소이다. ... 이하생략⁴⁴⁾

그러나 하인리히 4세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왕으로 정당화하며, 그레고리 7에게는 힐데브란테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그레고리 7세의 현 위치를 자신은 인정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는 그릴 위치에 있을 자격도 없음을 천명하게 된다. 1076년 보름스 회의를 소집한 하인리히 4세는 독일 주교들로 하여금 그레고리 7세를 탄핵하여 교황직으로부터 밀어내려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왕 된 하인리히가 힐데브란트에게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서 아버지에게 어울리는 태도를 기대하고, 너에게 모든 면에서 순종하였건만, ... 내가 너에게서 얻은 보상은 우리 생명에 대한 아주 위험한 원수에게나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 나는 들어보지도 못한 이 집요함은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물리쳐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제국제후들의 청원에 따라서 모든 제국제후들의 총회를 개최하였다. ... 진술에 따라 너는 절대로 로마의 보좌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이 선포되었다. 그들의 선언이 정당하고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하여 보이기 때문에 나도 동의하였고 너에게서 네가 가진 것으로 보이는 교황의 모든 권세를 박탈하며, 로마의 보좌에서 내려올 것을 네게 명하노라. 그 보좌의 보호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며, 로마인들이 그러하다고 서약으로 동의하였노라.⁴⁵⁾

그는 이 공의회에서 그레고리 7세가 힘으로 교황자리를 찬탈한 자이며, 자신의 왕권을 침해한 자이기에 교황이 될 자격이 없는 자임을 선포한다.⁴⁶⁾ 하인리히 4세는 그레고리 7세를 향해 정면승부를 걸게 된다. 이 소식을 접한 그레고리 7세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부여한 '매고 푸는 권세'⁴⁷⁾를 사용하여 자신이 공포한 법령

44) '교회문제를 잘못 처신한 하인리히 황제에게 보내는 그레고리의 서간' 심창섭,채천석 편저, 『원자로 중심의 중세교회사』, 91-92.

45) 아돌프 마르틴 리터, 베른하르트 로제, 폴커 램핀 편역, 공성철 옮김, 『중세교회』 교회와 신학의 역사원전 II, 196.

46) "찬탈로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위임에 의해 왕이 된 하인리히는 교황이 아니라 거짓된 수도사인 힐데브란트에게 말하노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제국의 통치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이 교회의 통치로 부르시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나 하인리히는 모든 주교들과 함께 당신에게 말하노니 어서 내려오라. 당신은 모든 세대를 통해 저주를 받았노라." 심창섭,채천석 편저, 『원자로 중심의 중세교회사』, 92-94.

47)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부

을 즉각 실행하여 하인리히 4세를 파문하고, 왕위로부터 그를 폐위하게 된다.

1076년 그레고리 7세는 로마에서 개최한, 한 종교회의에서 어떤 주교나 수도원 원장도 속인의 통치자에 의해 서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법령을 선포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공식문서를 통해 '자신은 누구에 의해서도 심판 받을 수 없으며, 자신에게는 황제를 폐위시킬 권한이 있다'라는 교황의 권한에 관한 것을 공포하게 된다. 그리고 하인리히 4세를 폐위한다. 국가에 대한 교회의 우월권의 주장은 교황 그레고리 7세 때에 극적으로 나타난다.⁴⁸⁾

사도들의 으뜸이신 성 베드로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매 나는 그대에게 간구합니다. ... 성모와 성 바울가 모든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나의 증인이십니다. ... 나의 순결과 권위를 확신하면서 나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하인리히 황제의 아들 하인리히는 독일과 이탈리아 왕의 직위를 빼앗았노라. 나는 그대의 권세로 그리고 당신의 교회의 영광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행합니다. ...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대의 반석 위에 그의 교회를 세우고, 지옥의 문이 그곳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내가 그대의 이름으로 그(하인리히 4세)를 저주합니다.⁴⁹⁾

특히 그레고리 7세는 황제의 신민들에게 황제에 대한 모든 의무를 교황이 무효화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실행에 옮긴 최초의 인물이 된다. 이와 같이 그레고리 7세가 주장한 교황의 권한은 황제의 세속권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으며, 결국은 성직서임권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투쟁을 일으키게 된다.

2. 서임권 투쟁이 낳은 카놋사의 사건과 이를 통해 일어난 또 다른 사건

1) 서임권 투쟁이 낳은 카놋사 사건

하인리히 4세는 1076년 보름스 회의를 소집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독일 주교들로 하여금 그레고리 7세를 탄핵하여 교황직으로부터 밀어내려한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그레고리 7세는 하인리히 4세를 폐위하게 된다. 이때 하인리히 4세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 앞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그레고리 7세에 의해 공포되어진 폐위령에 대한 반응이 독일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났으며, 그 파급효과는 과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입장을 지지해주고, 자신의 편이 되어줘야 할 독일의 민심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작센 반군을 향한 승리로 군사적 힘이 강해진 하인리히 4세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제후들은 자

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마 16:18, 19)

48) 서영일, 『교회와 국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42.

49) '하인리히 4세에 대한 그레고리 7세의 파문' 심창섭,채천석 편저, 『원자로 중심의 중세교회사』, 94-95.

신들의 위치를 위협하는 하인리히 4세를 노골적으로 반대하게 된다. 따라서 그들은 그레고리 7세의 대응을 지지하게 되고, 하인리히 4세의 입장을 거부하게 된다. 사태가 이렇게 전개되자 하인리히 4세는 제후들의 요구에 굴복하게 된다. 그리고 하인리히 4세는 귀족과 주교들의 회의가 1077년 아우그스부르크에서 교황의 주재로 개최할 것을 합의하게 된다. 그 회의는 하인리히 자신이 교황에게 항복하고, 자신이 왕위에 복귀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자리였다. 만약 일이 이렇게 된다면 하인리히 4세는 정치적으로 더 이상 헤쳐 나올 수 없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하인리히 4세는 예정된 이 회의의 참석을 위해 북행하고 있던 교황을 만나기 위해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알프스를 넘어가게 된다. 그곳에서 왕은 겸손한 참회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맨발로 그레고리 7세 앞에 서게 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레고리 7세에게 사면을 구한다.⁵⁰⁾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계속되어진 하인리히 4세의 모습을 보고, 철옹성과 같았던 그레고리 7세의 마음이 녹아들게 된다. 그리고 그레고리 7세는 조건부 사면을 통해 하인리히 4세의 파문을 왕의 직무를 보류하는 조건으로 철회하게 된다.⁵¹⁾ 이 일로 인해 하인리히 4세는 제한적으로 왕의 권위를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눗사는 하인리히에게 오히려 두 가지의 귀중한 선물을 주는 자리가 되었다. 하나는 왕위의 영원한 폐위를 막는 자리가 되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완전히 잃지 않는 자리가 되었던 것이다.

2) 카눗사 사건을 통해 일어난 또 다른 사건

카눗사는 하인리히 4세로 하여금 자신의 자존심을 잃게 만든 장소였지만 반면, 자신의 폐위를 면하게 하며, 동시에 정치적으로 재활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장소였다.⁵²⁾ 국가의 수장이 교회의 수임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자리가 된 카눗사는 사제의 권력이 왕의 권력을 누른 상징적인 이름이 되었다. 카눗사 사건은 모든 것이 그레고리 7세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만 같았다. 그러나 카눗사의 이 사건은 그레고리 7세에게 또 다른 패배를 안겨주는 계기가 된다. 하인리히 4세는 교황의 파문 선고로부터 풀려나자 독일에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교황과의 화해 소식이 독일에 전해지게 되자 그를 반역하였던 자들이 와해되고, 그레고리 7세는 이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궁지에 몰리게 된

50) 하인리히가 카눗사에서 취한 행동에 대해 당대의 저자들은 그 사건을 전례없는 큰 겸손으로 보고 있지만 당시의 상황을 감안할 때 하인리히는 깊은 종교적 동기에 의해 움직이지 않았고, 자신의 왕권에 관한 일념에 의해 그렇게 움직였던 것이다.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5, 73.

51) 사면의 조건-교황이 의장을 맡게 될 독일 귀족 회의에서 자신(그레고리 7세)의 결정에 복종할 것이며, 교황과 그의 대표단이 독일로 여행하는 동안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과 함께 회의가 열릴 때까지 왕의 직무를 보류한다는 것이었다. 왕은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고, 주교 2인과 여러 귀족들이 그를 대신하여 그가 간직하게 될 성유물에 대고서 맹세했다.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5, 71.

52) 그레고리 7세는 사제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하기 위해 그는 고해 신부의 입장에서 왕의 회개를 역면 그대로 받아드린다. 그러나 하인리히 4세는 이것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처음부터 이 문제에 관해 진실하지 못하였다. 윌리엄 R. 케논, 서영일 역, 『중세교회사』, 214.

다. 왕에게 적대적이었던 제후들은 교황이 하인리히 4세와 개인적인 합의를 통해 그를 풀어준 것에 반발하여 그레고리 7세와는 상관없는 루돌프를 자신들의 국왕으로 선출하게 된다.⁵³⁾ 그리고 독일 내에서는 여전히 하인리히 4세를 지지하는 세력들과 루돌프를 지지하는 세력들 간의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일이 이렇게 전개되자 황급해진 그레고리 7세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하인리히 4세를 다시 파문하게 된다. 그러나 그레고리 7세의 지금의 행동은 카눗사 이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의 반응을 백성들에게 낳게 한다. 백성들은 카눗사 이전과는 달리 그레고리 7세에 의해 또 다시 파문당한 하인리히 4세를 동정하게 된다. 천군만마를 얻은 하인리히 4세는 백성들의 동정을 지지기반으로 삼게 되고 카눗사 때와는 달리 교황과의 화해의 길을 모색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에게로 집결된 힘의 세력을 앞세워 황제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되찾아 나가게 된다.

3. 서임권 투쟁이 가져온 두 왕과 두 교황

카눗사 사건으로 불거진 불뚝은 독일과 이탈리아의 내전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레고리 7세의 행동에 불만을 품은 귀족들과 주교들에 의해 하인리히 4세의 이복형제인 루돌프가 두 가지 조건⁵⁴⁾을 통해 1077년 5월 26일 새로운 왕으로 선출된다. 하인리히 4세는 교황에게 자신의 왕권을 강탈해간 자들에게 금령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레고리 7세는 이를 거부하게 되고, 하인리히 4세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독일에서의 교황의 안전통행권을 거두어들리게 된다. 하인리히 4세는 자신의 왕권을 계속 인정하였으며, 왕의 이름으로 1078년 프랑코니아 지방의 벨리히슈타트 전투에서 루돌프의 군대를 물리치게 된다. 그러나 전세를 가다듬은 루돌프 군대가 1080년 튀링겐 지방 뮐하임 근처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다. 그레고리 7세는 이 전투를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고, 하인리히 4세에게 두 번째 금령을 내리게 된다. 그는 하인리히 4세에 대해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치권을 박탈하게 되고, 모든 신자들은 그에게 복종하지 말 것을 선언하며, 루돌프에게 독일 왕의 왕관을 하사한다. 여기에 대해 하인리히 4세는 그레고리 7세에게 야심과 탐욕 그리고 성직매매 등의 경박한 죄목을 세워 폐위한다. 그리고 1080년 6월, 라벤나 대주교였던 클레멘스 3세를 새 교황으로 선출하며 맞대응을 한다.⁵⁵⁾ 이러한 경쟁은 다시 이중 내전의 발단의 계기가 된다.

하인리히 4세는 1080년 10월 15일 나움부르크 근처의 전투에서 패한다. 그러나 승리도 잠깐 루돌프는 고드프루아 전투에서 입은 치명상으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53) 심창섭, 채천석 편저, 『원자료 중심의 중세교회사』

54) 첫째는 왕위의 세습권을 포기한다는 것이었으며, 둘째는 교회가 성직자들을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55) 유스토 L. 곤잘레스, 서영일 옮김, 『중세 교회사』 (서울: 온성, 1987), 109.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5, 76.

된다. 루돌프의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한 하인리히 4세는 여세를 몰아 1081년 그레고리 7세를 폐위할 목적으로 알프스를 넘게 된다. 이에 위협을 느낀 그레고리 7세는 사순절 교회회의에서 과거 자신이 선포한 ‘아나테마’⁵⁶⁾를 재확인한다. 그러나 하인리히 4세에 의해 장악되어버린 로마는 그레고리 7세의 중심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게 된다.

4. 그레고리 7세와 하인리히 4세의 최후

1) 그레고리 7세의 최후와 그의 업적

1081년 봄, 알프스 산길의 눈이 녹자 하인리히 4세는 그레고리 7세를 무너뜨리기 위해 로마로 진군한다. 진군 도중 그는 롬바르디아에서 환영을 받았으며, 마틸다의 군대를 격퇴하는 등 사기가 충천한 상태로 오순절 전날인 5월 21일 로마의 성문에 도착하게 된다. 이때 그레고리 7세에게 남은 세력은 이전에 그의 동맹자였고, 남부 이탈리아를 통치했던 노르만인들뿐이었다.⁵⁷⁾ 그는 비잔틴에 지원군을 요청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왜냐하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사이에는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⁵⁸⁾

1081년에 즉위한 동방황제 알렉시우스 콤폰네누스는 터키인들에 대항하는 전쟁을

56) Anathema - ‘저주’, ‘파문’을 의미한다. 과거에 선포된 Anathema는 1076년 2월 22일 그레고리 7세가 성 베드로의 이름으로 하인리히 4세를 파문하고, 폐위하기 위한 공포되어졌던 것이다. “사도들의 군주인 복되신 베드로여, 어려서부터 친히 양육하시고 이날까지 악한 자들에서 보호해주신 당신의 종에게 귀를 기울이사 나의 간구를 들으시옵서, ... 나는 아나테마의 띠로 결박합니다. 이는 지상의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당신이 베드로임과 당신의 바위 위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고,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5, 65-66.

57) 후스토 L. 콘잘레스, *The story of Christianity*, 업성옥 역, 『중세교회사』 (서울: 은성, 2012), 121.

58) 1054년 7월 16일 콘스탄티노플의 거룩한 하기가 소피아에서 정오 예배를 드리기 전에 홈베르트는 미카엘과 그의 지지자들을 파문하는 내용이 담긴 교서를 게시한다. 그해 7월 24일, 죽은 교황 레오의 이름을 팔며 계속해서 활동하는 홈베르트와 그의 동료들을 총대주교가 파문시키는 것으로 응수한다. 이 사건은 교회를 동방과 서방교회로 갈라놓는 마지막 분열이 된다. 1071년 투르크족은 예루살렘을 점령한다. 당시 예루살렘은 동방제국의 일부이었다. 예루살렘을 되찾으려는 동방황제의 시도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따라서 동방은 어쩔 수 없이 교황 그레고리 7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여기에 대해 그레고리 7세는 돕기를 명명하였지만(그레고리 7세는 심각하게 위협받는 비잔틴 제국을 도우며 동방을 교회적으로 복속시키려는 희망을 가지고 계획을 추진한다.), 서방황제의 정책에 연루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데이비드 N. 벨, *이른재 옮김, 『중세교회 신학』* (서울: 사)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60-65.

- 비잔틴 신학은 서방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다. 제국은 외적인 침입으로 신학적 통일성이 침해를 받았고, 교리적 차이로 인해 내적분열이 빈번했다. 그러므로 교리적 정통성을 수립하는 것은 비잔틴 제국의 통일성을 결속해주는 열쇠였다. 임도건, 『초대.중세 교회의 역사와 신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170.

- ‘미카엘 케플라리오스 분열(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1043-1059)’은 경계지역 안에서 이루어진 교회 간의 알력에서 발전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래쪽 이탈리아에 있는 비잔틴의 관유지배지역이 문제였다. 이 지역은 정치적으로 노르만족들에 의해서 심각하게 위협을 당하고 있었다. 교회적으로는 노르만 민족들의 침입에 대항하여서 교황 레오 9세(1043-1954)가 추진하는 비잔틴 황제와의 동맹이 혹시 성사된다면 로마의 우산 속에 들어갈 위협에 처해진 곳이었다. 이에 반대하여서 신학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정치적으로는 더더군다나 야망에 차있던 성직계급의자인 총대주교 미카엘은 자기 소관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였다. 아돌프 마르틴 리터, 베른하르트 로제, 폴커 램핀 편역, 공성철 옮김, 『중세교회』 교회와 신학의 역사원전 II, 187-188.

치루기 위해 많은 군사력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때 그는 앵글로 색슨족들로 구성되어진 서방제국으로부터 뛰어난 용병들을 지원요청하기 위해 그레고리 7세에게 비잔틴의 대사들을 파송하여 직접 호소하게 된다.⁵⁹⁾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시대적인 정황으로 볼 때 비잔틴 제국 또한 그레고리 7세를 도울만한 여력이 없는 어려움에 처해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비잔틴의 도움을 받지 못한 그레고리 7세의 로마는 1084년, 하인리히 4세에 의해 무너진다. 그레고리 7세는 하인리히 4세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성 안젤로 성으로 도피하게 된다. 힘의 세력에 무너져버린 그레고리 7세의 말에 사람들은 더 이상 주목하지 않는다. 1085년, 도피자의 몸이 되어버린 그레고리 7세는 임종을 앞두면서 이런 말을 남긴다. “나는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증오했다. 이 때문에 객지에서 죽는다.”

그레고리 7세는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후계자로 몬테카시노 수도원장을 지명하게 되며, 그는 빅토르 3세라는 칭호로 교황에 임명된다. 그리고 그레고리 7세의 시신은 교황의 성직복에 싸인 채 그가 죽기 전에 축성했던 살레르노의 성 마태 교회에 묻히게 된다. 그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교황 수위권을 뒷받침하는 확고한 근거로 활용하였던 대표적인 교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레고리 7세는 교황 절대주의 옹호자이자 도덕적 개혁자로서, 로마 기독교 세계의 사상과 관습에 항구적인 흔적을 남겨 놓겨 된다. 랑게는 이런 그레고리 7세를 평가하면서 “그가 추구한 성직위계제도는 성직자 사회를 모든 인간 존재의 근간으로 삼으려는 노력에 토대를 둔다.”⁶⁰⁾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두 가지의 전형적이고, 근본적인 원리들을 만들어내게 된다. 하나는 ‘의무적 독신제도’였으며, 또 다른 하나는 ‘평신도 서임권 금지’였다.

그레고리 7세는 재능과 도덕적 열정에 있어서 남달랐다. 그의 이런 모습에 대해 그레고리오우스는 그레고리 7세의 모습이 마치 나폴레옹을 보는 것만 같았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는 종교 지도자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에 있어서도 다른 교황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황제 절대주의를 향해 위풍당당하게 대항하는 혁명적인 용기를 지니고 있었다. 이런 그레고리 7세는 후에 로마교회로부터 순교자로 인정을 받게 되며,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⁶¹⁾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그의 주변이 쓸쓸했던 것은 교황 절대주의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한다.

59) 윌리엄 R. 캐논, 서영일 역, 『중세교회사』, 215-216.

60)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5, 81.

61) 그의 이름은 1584년 5월 25일에 그레고리우스 13세에 의해서 공식적인 시성없이 교회력에 성인으로 올랐다. 그리고 1609년에 파울리누스 5세에 의해 새로운 성인을 위한 축일 거행이 명령되어졌고, 1728년 베네딕투스 13세에 의해 이 축일이 모든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거행하도록 명령되어졌다.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5, 80.

2) 하인리히 4세의 종말

그레고리 7세를 몰아내고 승리한 하인리히 4세는 잃어버린 왕권을 되찾는 일에 일념이었다. 그레고리 7세를 몰아낸 하인리히 4세에게 돌아온 것은 승리에 따른 영광의 면류관만이 아니었다. 독일로 돌아온 그는 수많은 내란에 휩싸이게 된다. 하인리히 4세는 교황 빅토르 3세의 짧은 8개월의 뒤를 이어 교황에 오른, 우르반 2세와도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게 된다. 심지어 하인리히 4세는 우르반 2세에 의해 조정당한 자신의 장남인 콘라트의 반란과도 맞서야만 했던 것이다. 그의 자녀와의 전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1099년에 교황에 선출된 파스칼 2세는 하인리히 4세의 차남을 부추켜 그의 아버지와 대항하게 만들었으며, 하인리히 4세는 파스칼 2세의 지원을 받은 자신의 아들에 의해 왕위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게 된다.

자신의 차남인 하인리히 5세의 반역은 하인리히 4세의 전부를 빼앗아 가버린다. 하인리히 5세는 자신의 아버지를 회담에 초청한 다음 그를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게 된다. 이런 수모를 겪은 하인리히 4세는 그의 아들과 맞서 싸울 세력을 규합하게 되고, 전쟁을 준비하던 중 1106년 8월 7일 리에주에서 아나테마의 짐을 짊어진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⁶²⁾

V. 서임권투쟁이 가져온 주요 결과들

1. 서임권 논쟁에 대한 타결

하인리히 4세의 후계자인 하인리히 5세는 아버지 못지않게 추기경들을 투옥시키면서 교황권을 압박한다. 그러나 그레고리 7세에 의해 되찾은 서임권을 로마교회는 절대로 내어놓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그레고리 7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던 파스칼 2세에 대해 하인리히 5세는 칼로 응답받을 것을 약속한다. 파스칼 2세와 서임권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 하인리히 5세는 1110년 자신의 딸대로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진군하게 된다. 그리고 로마에 무력으로 입성한 황제는 교황에게 황제가 무엇 때문에 주교를 임명해야하는지 그 사실을 설명한다.⁶³⁾ 이때 파스칼 2세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교회는 세속적 권리인 영주권을 포기하고, 오직 신자들의 십일조와 헌금에만 의해 생활할 것을 제시하게 된다. 따라서 왕은 서임권을 포기하고, 교회는 세속의 권리를 포기하는 급진적인 안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 안은 교회와 국가는 각자 서로의 서임권을 가지며, 교회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국가는 세속의 현세적 권위를 갖는다는 합의점을 만들어내게 된다.⁶⁴⁾ 그러나 교황의 제시

62)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5, 87.

63) “교회의 영지가 제국 내에 있는데, 그 영지를 관할하는 권한을 가진 주교들을 제국의 황제가 임명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안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교들이 반기를 들게 된다. 따라서 1111년 하인리히 5세가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로 대관을 받고자 로마로 왔을 때, 파스칼 2세는 이를 거부하게 되며, 서임권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한다. 이에 분노한 하인리히 5세는 교황을 비롯한 추기경들을 감금하게 되고, 파스칼은 성직 서임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

그 후 황제의 친척인 칼릭스 2세가 교황의 자리에 앉게 되자 그와 친척들은 분쟁의 종식을 위해 움직이게 된다. 파스칼 2세와 서임권에 따른 논의가 있는 지 10여년이 지난 1122년, 하인리히 5세는 보름스 협약을 통해 서임권에 대한 최종합의안을 마련한다.⁶⁵⁾ 그리고 보름스 협약은 1123년 ‘제1차 라테란 회의’에서 추인을 받게 된다.

2. 교회의 회복과 교회와 국가의 관계

그레고리 7세를 통한 서임권 투쟁은 그 이후 교황 우르반 2세와 파스칼 2세에 의해 승계되어지면서 보편적 지배권에 대한 정치적 논쟁을 담은 저술들이 115편이나 양성된다.⁶⁶⁾ 특히 그레고리 7세를 통해 일어난 서임권 투쟁은 교회의 무너짐 앞에 두 가지의 분명한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 첫 번째는 성직매매와 성직자 결혼에 대한 이전의 칙령들이 다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세속 권력자가 주교나 수도원장들에게 반지와 지팡이를 수여하는 성직수입의 관습이 금지되었다는 점이다.⁶⁷⁾ 뿐만 아니라 그레고리 7세의 서임권 투쟁은 교회와 국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선을 긋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레고리 7세와 하인리히 4세 사이에 시작된 서임권 투쟁은 처음 시작과는 달리 그 문제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처음 시작된 서임권 투쟁이 교황으로서의, 군주로서의 권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로 시작되어졌다면, 뒤에는 이 문제들이 교회와 국가의 양상으로 그 모습이 커져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왕의 입장에서 바라 볼 때, 군주는 교회의 수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진 곳과 교회가 다스리는 모든 영역이 국가라는 존재 위에서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한 나라 안에서 교회가 교황권을 가지고 국가의 권력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레고리 7세의 입장은 달랐다. 그는 교회를 ‘태양’에 비유하고, 국가를 ‘달’에 비유하면서 달은 태양에게서 그 빛을 빌려

64) 임도건, 『초대.중세 교회의 역사와 신학』, 165.

65) 합의 내용 (1) 모든 감독과 수도원장의 선출은 교회법에 따라 실시하되 황제의 감독 하에 한다. (2) 반지와 지팡이를 줌으로써 성직을 서임하는 권리는 교황에게 귀속된다. (3) 황제가 성직서임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세속적인 권리와 권위의 상정으로서 왕의 지팡이를 접촉함으로써 해야 한다-(독일 황제는 성직자에게 종교적 상징인 임명권을 행사하지 못했으나 세속 지배자의 자격으로 주교에게 속권을 수여할 권한을 허용 받게 된다.) 시요한, 『중세교회사』 (서울: 도서출판 그리스, 2003), 281-282.

66) 이영재, “교황 Gregory 7세의 서임권 투쟁에 관하여”, 54-55.

67) 마가렛 단슬리, 박희석 역, 『중세교회사』, 125.

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 마디로 그레고리 7세의 입장은, 교황은 감독이면 뿐 만 아니라 제왕이면 권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지상대권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⁶⁸⁾

마치 풀려지지 않을 영커진 실타래와도 같은 문제가 서임권 투쟁을 통해 전면에서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서임권 투쟁은 교회와 국가 간의 장기 내전과 격렬한 논쟁을 통해 교회는 국가를 인정하게 되고, 국가는 교회를 인정하는 영역의 구별점을 낳게 된다. 특히 그레고리 7세의 서임권 투쟁의 영향력은 독일 내에만 국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레고리 7세 사후 프랑스와 영국에도 그 영향력이 끼쳐지게 된다. 프랑스 군주의 신복이었던 이보 샤프트르트는 주교의 정신적인 임무와 세속적인 임무 간의 구분을 도출해 내는 교권과 세속적인 현세권을 구별하는 준거로 발전시킨다. 그리고 영국은 1107년경 군주가 반지와 지팡이를 주교들에게 서임하는 관행을 포기하는 대신 교회들에 부속된 토지들에 대한 봉건적인 신서를 위임하는 권한을 유지하기로 한다.⁶⁹⁾

3. 의식의 발전과 문화적 충격

그레고리 7세를 통한 서임권 투쟁은 왕국은 내세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영역 위에서도 세워져야한다는 의식적 발전을 가져온다. 그리고 세속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선호하는 세력의 전환이 생겼으며, 영적인 것이 세속적인 것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을 낳게 된다.⁷⁰⁾ 이런 서임권 투쟁은 독일 역사에 있어서 공작들과 군주들의 영토주권에서 지방적 자율성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의식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그레고리 7세는 교황제 교회로 나아가는 길을 다져 놓게 된다. 그 결과 교황은 구원의 조건과 교회에서 옳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게 된다.⁷¹⁾ 뿐만 아니라 그레고리 7세를 통한 서임권 투쟁은 십자군 전쟁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되지는 못하였지만 그 동기를 유발시키게 된다.⁷²⁾

특히 그레고리 7세가 강조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교 형제를 구하기 위

68) 김의환, 『기독교회사』 (서울: 종신대학교출판부, 2002), 177.

69) 이영재, “교황 Gregory 7세의 서임권 투쟁에 관하여”, 56.

70) Joseph. H. Lynch, *The Medieval Church*, 249-250.

71) 세계 지배권을 추구하려면 교황에게는 후원자와 조직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레고리 7세와 같은 혁명가는 그만한 위치에 있지 못했으며, 그럴 의향도 없었다. 오히려 소명의식이 투철했던 그레고리 7세의 저돌적인 성향은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나 우르반 2세는 종교와 정치를 잘 아는 현실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인간은 수도원 입회를 통해서 죄로부터 자신을 가장 잘 정화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우르반 2세는 어떤 교황보다도 아우구스틴 참사수도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그레고리 7세의 여파로 많은 것을 보고 알게 된 우르반은 그레고리 7세와는 달리 행정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게 되며, 임기 시작 직후인 1089년에 교황의 궁정 국가를 의미하는 ‘로마 교황청’이라는 용어를 처음 등장시키게 된다. 호르스트 푸어만, 차용구 옮김, 『교황의 역사』, 147-150.

72) “그는 성 베드로의 군대를 이끌고 성지를 정복하고, 반역적인 모든 군주들을 굴복시키고 싶어 했다. 최초로 십자군 원정을 기획했으며, 그의 기획을 그의 둘째 계승자가 실천했다.”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5, 48.

한 순교는 십자군 열망의 주요한 영감이 된다.⁷³⁾ 이와 같이 서임권 투쟁은 많은 정치적 변화를 피하게 되었으며, 특히 독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서임권 투쟁기간을 통해 서유럽의 지적인 지도력을 상실하게 되는 문화적인 충격을 맞이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서임권 투쟁 이전인 1050년, 독일의 수도원들은 지식과 예술의 위대한 중심부였다. 그리고 신학과 교회법의 독일 학교들은 유럽의 어떤 지역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탁월함을 인정받고 있었다. 그러나 서임권 투쟁으로 촉발되어진 교회와 국가 간의 장기 내전과 격렬한 논쟁은 독일인들로 하여금 이러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였다. 따라서 문화적으로 선도해왔던 독일은 중세 내내 과거의 문화적 지도력을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⁷⁴⁾

73) 이영재, “교황 Gregory 7세의 로마 교회론과 성전(holy war)관”, 『한국서양중세사학회/서양중세사연구』 제19호 (2007): 59-60.

74) 이영재, “교황 Gregory 7세의 서임권 투쟁에 관하여”, 57.

VI. 결론

교황(pope)의 사전적 의미는 ‘아버지’란 뜻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집안의 가장이며, 가정의 최고 의결권자이다. 이런 교황이라는 단어가 고대에서 중세교회로 넘어오면서 존경받는 일반적인 호칭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일부 교황들은 존경받는 자가 아니라 세속적 권위 위에 자신의 야욕을 드러내며, 이로 인해 황제들과 갈등을 낳기도 한다. 드디어 교회는 개혁이라는 도마 위에 올려지게 된다. 이때 개혁의 선두에 서있었던 그레고리 7세와 왕권의 회복을 위한 하인리히 4세와의 ‘서임권 투쟁’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 첫 번째로 두 사람 간에 있었던 ‘서임권 투쟁’을 서로의 입장에서 비추어 보게 되면, 두 사람은 자신들만의 입장에서 권력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고립된 자들이었다. 그러나 이것을 한발 비켜, 교회입장에서 바라보면 교회로서의 타당성을 말하고 있었으며, 국가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국가의 타당성을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임권투쟁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고찰해보면 서임권의 문제는 중세사회의 커다란 형틀인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레고리 7세와 하인리히 4세 사이에 있었던 서임권 투쟁의 동기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면 서임권 투쟁은 첫째, 그들의 성장 과정 속에서 보고, 배우며 자라왔던 환경에 따른 하나의 열매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레고리 7세의 경우를 보면 그의 영적 성장 과정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타락과 무질서의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뼈대의 역할을 하였던 클루니 수도원에서의 생활이었다. 그레고리 7세의 개혁의 바탕에는 클루니 수도원적인 개혁이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그의 개혁은 자신의 이름을 힐데브란트에서 그레고리로 바꾼 것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성직자 사이의 부도덕 그리고 성직매매로부터 교회를 철저히 정화시키며, 교회로 하여금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구별해내는 것에 있었던 것이다. 반면 하인리히 4세는 아버지 하인리히 3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6살의 어린 나이에 권좌에 오르게 되면서 제국의 힘이 교회로 그리고 귀족들에게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자라게 된다. 곡두각시의 세월을 살아왔던 하인리히 4세는 왕국의 힘을 회복하는 일에 힘을 모으게 된다. 따라서 그는 이를 위해 교회에 편중되어있던 힘의 실세를 잡아야만 했던 것이며, 서임권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다. 그럼으로 서임권은 그레고리 7세와 하인리히 4세의 입장에서 그 어느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대목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임권의 투쟁은 세속과 신앙의 관점을 통해 일어난 한 사건이라 말할 수 있다. 그레고리 7세는 새로워진다는 개혁을 세속적인 것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으로 그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니라 순수한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

방향을 잡고 있었다. 따라서 그레고리 7세의 개혁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는 것을 그 중심과 방향으로 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개혁으로 보여졌지만 그레고리 7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개혁이 아니라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럼으로 하인리히 4세에 의해 쫓김을 당하다가 임종을 맞이하게 될 때, 그레고리 7세는 “나는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증오했다. 이 때문에 객지에서 죽는다.”라는 말을 남겼던 것이다.

그레고리 7세의 개혁은 황제 중심이 아니라 교회 교황 중심의 지배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교회의 전통적 구조를 바꾸는 혁신이었다. 따라서 그레고리 7세의 서임권 투쟁은 그동안 세속권력에 의해 좌우되었던 주교의 서임권을 교회의 교황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가 밀라노의 주교에 대한 임명권으로 촉발되었던 것이다. 서임권의 문제는 하인리히 4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그레고리 7세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어느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였다. 특히 서임권 투쟁을 통해 일어난 카놋사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멈추지 않는 열차가 탈선하여 그 궤도를 벗어난 것처럼, 권력의 무상함과 함께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인생의 무상함을 동시에 바라보게 한다.

서임권 투쟁은 한 나라에 두 왕을 존립하게 만들었으며, 서로의 입장을 달리하는 두 명의 교황이 세워지는 혼극을 빚어내었다. 뿐만 아니라 내전이라는 소모전을 낳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임권의 투쟁은 국가는 교회의 영역을 인정하고, 교회는 국가의 영역을 인정하는 가시화의 현상을 낳게 하였던 것이다.

VII.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광채. 『중세교회사』. 서울: 도서출판 신성, 2002.
김의환. 『기독교회사』. 서울: 종신대학교출판부, 2002.
심창섭, 채천석 편저. 『원자료 중심의 중세교회사』.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07.
서영일. 『교회와 국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서요한. 『중세교회사』. 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2003.
임도건. 『초대.중세 교회의 역사와 신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임원택. 『역사의 거울 앞에서』. 서울: 도서출판 수풀, 2008.
최형걸. 『중세교회사』.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0.

2. 번역본

-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4. 이상길 옮김. 『교회사전집 4』. 경기도: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6.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5. 이상길 옮김. 『교회사전집 4』. 경기도: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6.
Joseph. H. Lynch. The Medieval Church. 심창섭, 채천석 옮김. 『중세교회사』. 서울: 솔로몬, 2007.
데이비드 N. 벨. 이은재 옮김. 『중세교회 신학』. 서울: 사)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마가렛 단슬리. 박희석 역. 『중세교회역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브라이언 타이어너 / 시드니 페인터 공저. 이연규 역. 『서양중세사』. 서울: 집문당, 1995.
아돌프 마르틴 리터. 베른하르트 로제. 폴커 램핀 편역. 공성철 옮김. 『중세교회』. 교회와 신학의 역사원전 II.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10.
윌리엄 R. 케논. 서영일 역. 『중세교회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6.
앤드류 밀러. 정형모 역. 『성경의 예언적 관점에서 본 교회사』 3. 경기도: 전도출판사, 2006.
후스토 L. 곤잘레스, 이형기, 차중순 역. 『기독교사상사(II)』. 서울: 장로교출판사, 2002.
후스토 L. 곤잘레스. The story of Christianity. 엄성욱 역. 『중세교회사』. 서울: 은성, 2012.
유스토 L. 곤잘레스, 서영일 옮김. 『중세 교회사』. 서울: 은성, 1987.
호르스트 푸어만, 차용구 옮김. 『교황의 역사』. 서울: 도서출판 길, 2013.

3. 학술지

- 이영재. “교황 Gregory 7세의 서임권 투쟁에 관하여”. 『한국서양중세사학회/서양중세사연구』 제15호, 2005.
김병룡. “성직 서임권 투쟁과 클뤼니의 정체성 : 하인리히 4세와 후고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서양사학회/서양사론』 제85호, 2005.
장준철. “전통과 혁신 :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개혁의 양면성”, 『한국서양중세사학회』 제56호, 2008.
이영재. “교황 Gregory 7세의 로마 교회론과 성전(holy war)관”. 『한국서양중세사학회/서양중세사연구』 제19호, 2007.